



판결문 속 어려운 말, 쉽게 풀어 읽기

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‘필(畢)하다’, ‘최고(催告)’, ‘화체(化體)하다/되다’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1. 필(畢)하다

마치다, 끝나다

| 판결문 예시 |

... 60일 내에 “乙”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

| 쉽게 읽기 |

... 60일 내에 “乙”의 비용으로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

2. 최고(催告)

독촉(督促)

I 판결문 예시 I

...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회 이상의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...

I 쉽게 읽기 I

...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회 이상의 독촉을 거쳐 (또는 독촉을 하여)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...

3. 화체(化體)하다/되다

구체화하다/되다, 나타나다, 실현하다/되다

I 판결문 예시 I

...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...

I 쉽게 읽기 I

...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구체화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...

(출처/법원사람들)